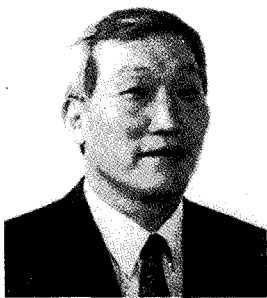


정확히 파악해야 하겠다 낙농업의 현주소



강 춘 성
전국농민단체협의회장

지난 3월 6일 통산산업부장관 이름으로 대외무역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거, 모조분유에 대해 2001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수입을 제한 하기위한 공고가 있었다. 이에따라 수입승인 및 수입관리 세부요령이 확정되어 한국유가공협회가 이 업무를 취급하기로 했다. 세부요령에 따른 모조분유 수입 배정기준을 보면 과거 모조분유 수입실적 비율에 의하여 물량을 배정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그래서 경악하고 있다.

UR협상 과정에서 제출된 이행계획서상의 소홀로 인해 8% 이하의 세금을 물고 값싸게 수입되는 모조분유를, 이미 많이 수입한 업체가 앞으로 더욱많은 물량을 값싸게 수입 할 수 있도록 한 수입지침이라는데 모두가 깜짝 놀라게 된 것이다. 뭔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지적이다.

값싼 모조분유의 과다한 수입으로 국내산 분유는 적체가 되어 이로 인하여 낙농가들은 예년에 볼 수 없는 좌절감속에 낙농업을 포기 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수입실적 비율에 따라 계속 수입토록 한다니 망연자실 해진다.

국내의 낙농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큰벌을 받아야 마땅한 터에 오히려 더욱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값싼 수입분유의 수입기회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정부는 WTO규정을 내세워 변명하지만 수입업체를 견제하면서 국산분유를 많이 사용한 업체위주의 배분방안이 충분히 제시될 수 있음에도 일방적인 조치로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 물론 이를 보는 우리 낙농가들의 시각도 많은 문제점을 앓고 있다고 봐야겠다. 이 나라 낙농업을 말살시키려는 모조분유 수입업체와 이를 즐겨쓰는 가공업체가 누구인 것이 분명하게 판명이 되었는데도 낙농가들의 목소리가 없기 때문이다. 우리를 지키려는 목소리가 적다는 것이 더 큰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우리 낙농가들이 낙농업을 생업으로 하며 국민의 건강을 위한다는 자긍심을 갖고 오늘까지 이 나라의 낙농업을 발전시켜 왔다면 낙농업을 말살시키려는 자에게 과감한 응징을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런데도 응징할 기력조차 없어졌단 말인가.

과거에도 오늘과 같은 위기를 맞은 때가 있었다. 그때마다 우리

낙농가들은 슬기롭고, 용기있게 버티고 대응하면서 스스로를 지키고 낙농을 발전시켜왔다. 그렇다면 오늘의 위기를 맞은 우리 낙농가들의 자세는 위기극복을 위한 노력이나 용기가 있는지 의문을 던지고 싶다.

얼마전 모조분유로 인하여 우리나라 아기들이 외국산 치즈 찌꺼기가 들어간 분유를 먹고 있다는 보도를, 그리고 지난 해 9월에는 국산 조제분유에 발암물질인 DOP가 국내 낙농가들의 착유기 호스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도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DOP 우려는 간주 됐던 것과는 달리 모조분유에서 검출됐을 가능성이 커진다는 언론보도로 우리 국산 분유의 품질과 안전성을 재규명해야 될 것으로 생각된다. 그리고 국내 낙농업체가 분유재고 급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만큼 조제분유에는 이제 수입 모조분유대신 국산 탈지분유로 원료를 전환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하지만 비단 낙농업의 위기는 모조분유의 수입개방만이 아니다. 국내에서 자급 해야될 조사료마저 비싼 가격으로 수입 해야되는 현실, 농후사료값의 양등, 과도한 투자를 요구하는 시설비의 압박, 강화된 검사규정, 환경오염 문제, 오보 및 과장된 언론보도 등이 우리를 좌절시켰고, 이러한 좌절감이 위기를 맞아도 대응하지 못 할 정도로 낙농가들을 나약하게 만들었다.

그렇다면 우리는 좌절감에서 헤어나지 못한 채 이대로 벼랑끝으로 떨어지고 말 것인가.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아니된다. 우리의 자존심이 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다. 떳떳하게 살아온 낙농인의 삶을 부끄럽게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물론 오늘의 분유체화는 쉽게 해소되기 어렵고, 우유 소비 또한 큰 폭의 신장을 기대하기 어렵다. 모조분유의 한시적 제한 규정 역시 적체된 분유재고(1만4천여톤)를 외면한 형평성을 잃은 정책 때문에 낙농가들을 위기로 몰아 넣는 행위임이 분명하다. 하지만 우리는 오늘의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야 된다.

먼저 오늘의 현실인 낙농업의 현주소를 정확히 파악 해야 겠다. 열린 세계속에 유제품이 개방되었다는 현실을 깨달아야 한다.

지난 3월 6일
모조분유수입을 제한하기
위한 공고가 있었다.
그러나 국내의 낙농업을
위기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이
큰벌을 받아야 마땅한
터에 오히려 더욱 많은
돈벌이를 할 수 있도록
값싼 수입분유의 수입기회를
준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다.

낙농가들이 단결만
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극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조제분유 업체의 모조분유
수입은 억제될 것이다.

아울러 과거 모조분유
수입실적에 따른
배정기준도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또 규모화 전업화에 따른 과도한 투자가 있었음을 알아야 한다. 나아가 국민 전체의 소득수준 향상에 따른 소비의 증가가 있는가 하면, 짚값의 앙등 등 외적 요인들이 우리들 낙농가들의 운명을 결정적으로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도 알아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를 알고 대처해야 한다. 잘못된 오보로 인한 소비자의 인식을 깨우쳐 주는 것이 더 이상의 분유체화를 막고 우유소비 촉진을 위한 현명한 길이라는 것도 알아야 한다. 그리고, 위기상황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여야 한다.

그런데 현안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나 결속력은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낙농업의 위기는 예측을 불가능 하게 한다는 사실도 깨달았으면 한다. 첫째도 둘째도 낙농가들의 강한 힘을 가져야만 살아날 수 있음을 깨달았으면 한다. 그것이야말로 우리 낙농업의 발전이다. 그래야만 우리가 낙농업의 위기를 극복 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힘을 갖는다는 것은 사소한 이해관계를 떠나 서로의 이해와 협조속에 하나가 되는 것을 뜻한다.

같은 낙농인이 모여 힘을 모으면, 그것이 하나가 되는 것이다. 그 어떤 압력에도 밀리지 않는 튼튼한 등지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낙농가들이 단결만 한다면, 오늘의 위기는 극복 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요즘 종종 주위에서 낙농인들이 단결이 잘 안된다고 개탄을 하는 소리를 듣고 있다. 푸념하거나 개탄하기 전에 내가 먼저 단결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를 찾아내고 협조한다면 그것은 쉽게 해결될 것으로 본다.

개인적으로는 영세하지만 2만 낙농가들이 협회 중심으로 모이고 단결하면 큰 힘이 발휘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 그리될 경우 더이상 우리나라 어린이에게 치즈 찌꺼기가 들어간 모조분유를 먹이지 않게 될 것이고, 나아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우리나라 조제분유 업체의 모조분유 수입은 억제될 것이다. 아울러 과거 모조분유 수입실적에 따른 배정기준도 조정될 수 밖에 없을 것이다. ☺